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11월 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해외건설 · 플랜트의 날’ 기념식에서 해외건설 분야의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해외건설이 미래로 도약하는 신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관련 단체장, 임직원, 유공포상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7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약 34년간 Oil & Gas, 원자력, 환경 등 다양한 해외플랜트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해외건설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대건설 (주)류성안 전무가 받았다.

안산시 향토기업인 (주)함창은 금번 기념식에서 정부포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안산시와 중소기업의 위상을 다시한번 떨쳤으며, 2005년부터 2024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대형플랜트 공사참여 및 수주를 통하여 외화획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프로젝트 수행중 원청사로부터 단 한차례의 하자 청구도 발생하지 않은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건설 현장에서 무재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우리 기업은 각국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제 해외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며 해외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서 협력하길 원하는 인프라 강국이라는 이점을 살려 해외건설이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